한국의 역사에 과학기술은 없는가?

과학기술자 외면 '이달의 문화인물' 유감

글_박성래 | 한국외국어대 교수

> 과학관에 '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일도 좋지만, 해마다 4월에는 과학기술 인물을 '이달의 문화 인물'로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달의 문화인물'이란 것이 있다. 이미 10년 이상 계속되어온 정부(문화관광부) 행사인데, 매달 한 사람씩 '문화인물'을 골라 여러 가지 행사를 곁들이는 일이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는 '이달의 문화인물'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인 재발견 운동의 일환으로 1990년 7월부터 매월 '이달의 문화인물'을 선정하여 각종 선양사업을 펼쳐, 선현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이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03년 '이달의 문화인물' 12명 가운데 과학기술자는 한 명도 없다. 2003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2002)에도 없었고, 그 전 해(2001)에도 없었다. 그 전까지는 대체로 한 해에 한 번, 주로 4월 '과학의 달'에 맞추어 '이달의 문화인물'로 과학기술자를 선정했었다. 그런데 2000년 4월에 과학자로 선택되었던 서경덕(徐敬德)을 마지막으로 이후 과학기술자는 '이달의 문화인물'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왜 그렇게 된 걸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 어쩌면 문광부에서 산하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선발을 진행하는데, 산하에 과학기술계 단체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과학계에는 과학문화재단이라는 기구가 있지만 이것은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지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은 아닐 터이니 말이다.

장영실 · 허준도 일제 이후 알려져

요컨대 과학기술은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될까 겁이 나서 하는 말이다. 한국 역사에는 과학기술의 전통이 없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평생을 붙잡고 있는 '한국과학사'란 무엇인가?

우리 역사에서 과학기술사는 개척이 가장 덜 된 분야에 속한다. 그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상의 역사가 밝혀져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세종 때의 시계 기술자 장영실(蔣英實)이나 선조 때의 의사 허준(許浚)은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인물이다. 이들 역시 일제시대 이후에 겨우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해방 후에 유명해진 과학 인물로는 지전설을 주장한 홍대용(洪大容)이나 수원 화성을 쌓을 때 거중기를 고안했던 정약용(丁若鏞)을 들 수 있다. 역시 근래에 유명해진 인물로는 곤충학자 석주명(石宙明)과 육종학의 우장춘(禹長春)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될 듯하다.

이렇게 역사란 새로 발굴하고 다시 평가하는 가운데 민족의 보람이 되고 국가의 정신적 재산이 된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자극 속에 후세들은 더욱 알찬 문화를 가꾸기 위해 한층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관에 '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일도 좋지만, 해마다 4월에는 과학기술 인물을 '이달의 문화 인물'로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